

레미콘 및 건설경기 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96년 3/4분기 건설경기 동향

1) 개 황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6년 3/4분기 국내총생산(잠정)에 의하면 '96년 3/4분기중 국내총생산(실질GDP)은 고정투자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수출도 물량면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의 신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6.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정투자는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설비투자가 비교적 큰 증가를 보여 6.5%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건설업은 표.1에서와 같이 부문별로 공공부문건설이 공종별로 토목건설이 호조를 보

인 반면 각각 민간부문건설과 비주거용건물건설이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여 전체적으로 4.7%성장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이 중 민간부문건설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건설이 전 분기에 이어 계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분양주택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주거용건물건설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상가, 공장등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전반적인 경기둔화를 반영,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2.0%의 증가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공공부문건설은 인천과 대구의 지하철공사와 도시토목 및 상하수도 건설등이 활발하여 10.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 위 : %)

	1995년					199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건 설 업	7.7	9.0	10.9	10.9	9.8	9.8	5.2	4.7
민 간 건 설	7.2	8.7	13.6	12.8	10.8	8.1	2.4	2.0
주 거 용	-0.6	9.4	15.0	13.0	9.2	6.9	-1.8	3.3
비주거용	13.3	14.0	17.5	8.5	13.4	4.7	-3.9	-9.6
토목건설	20.5	1.6	11.0	20.7	13.2	20.9	19.0	13.4
공 공 건 설	12.1	10.8	2.7	6.2	7.0	20.6	12.5	10.0

자료 : 한국은행 '1996년 3/4분기 국내총생산' 참조.

2) 건축허가 동향

건설교통부의 3/4분기중 총 건축허가면적 동향에 의하면 국내 총 건축허가면적은 표. 2에서와 같이 29,163천㎡로 전년동기 22,849천㎡보다 27.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96년 3/4분기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 위 : 천㎡, %)

구 분	96.7	96.8	96.9	96.3/4	95.3/4	증감률
계	11,248	7,575	10,340	29,163	22,849	27.6
주거용	5,711	3,399	5,072	14,182	11,763	20.6
상업용	2,809	2,060	2,428	7,297	5,349	36.4
공업용	988	1,077	1,381	3,446	3,056	12.8
기 타	1,739	1,039	1,459	4,237	2,682	58.0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주택국 건축과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8월중에 건축허가면적이 공동주택의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사업승인 신청을 미루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과 9월중에 단독,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가 크게 늘어나 전년 같은 기간의 11,763천㎡보다 20.6%가 증가한 14,182천㎡를 기록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건축활동이 부진하였던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부산시 전자종합상가 등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판매시설 등의 신증축과 대규모 업무시설이 증가하였고 경남, 경북, 경기 등의 지역에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년동기 대비 36.4%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공업용건축허가면적은 대전 대덕구 삼사공단내의 공장신축 및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내 공장신축, 동해시 쌍용시멘트공장 증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056천㎡보다 12.8%증가한 3,446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 건설계약액 동향

건설협회에 의하면 96년 1-9월까지 국내건설공사 계약액의 누계는 표.3에서와 같이 46조 8천8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9%증가 하였다.

9월까지 공공건설계약액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37.2%증가한 19조 1천636억원으로 집

〈표 3〉 '96년 3/4분기 건설계약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96. 7월	'96. 8월	'96. 9월	1-9월 누계			
				96년	95년	증감률	
총 계약액	53,795(-6.1)	67,174(57.8)	46,432(17.2)	468,882	381,354	22.9	
공공	합 계	25,728(-2.4)	24,626(19.8)	21,717(21.4)	191,636	139,659	37.2
	토 목	18,529(-2.9)	19,138(31.2)	15,370(21.4)	142,126	96,134	47.8
	건축	7,199(-1.2)	5,488(-7.9)	6,347(21.5)	49,510	43,525	13.7
민간	합 계	28,067(-9.2)	42,548(93.2)	24,715(13.6)	277,246	241,695	14.7
	토 목	3,171(-4.0)	2,904(20.5)	1,808(-28.8)	28,374	20,259	40.1
	건축	24,896(-9.8)	39,644(102.1)	22,907(19.2)	248,872	221,436	12.4

주) 1. ()는 전년 동월 증감률임.

2. 대한건설협회자료 참조(상위 200개사 실적은 통계청 수치를 이용)

계되었으며 공중별로는 토목이 도로, 상하수도, 발전소, 항만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8%증가한 14조2천126억원을 기록하는 급격한 신장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건축은 주거용이 민간주택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반사적 영향과 95년에 이월되었던 주택공사의 사업물량이 연초부터 본격 발주된데다 지자체의 아파트 발주도 역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작년동기대비 5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학교시설, 관공서등 공공건물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6%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4조9천510억원에 이르렀다.

민간부문건설계약액의 누계는 27조7천2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7%증가하였다. 이를 공중별로 살펴보면 토목이 신공항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에대한 민자유치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0.1%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건축은 비주거용의 부진에 기인하여 12.4% 증가에 머물렀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중 국내건설공사 총계약액은 공공토목건설의 부진과 민간건축 경기의 회복지연으로 전년동기대비 6.1%감소하는 5조3천79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8월에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의 건설계약액이 대규모공사물량이 집중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93.2%나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한것에 힘입어 8월중 총 건설계약액은 전년동월대비 57.8%증가한 6조717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9월 국내건설공사계약액은 공공부문의 꾸준한 호조에 힘입어 4조6천432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7.2%의 신장율을 보였다.

2. 1996년 3/4분기 레미콘 수급 동향

1996년도 3/4분기 레미콘은 표.4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532개 업체 677개 공장에서 34,799,611m³을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26,121,687m³보다 33.2%증가함으로써 9월까지 누계로 보면 91,710,985m³를 생산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81,011,007m³보다 13.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폭의 레미콘 판매신장율을 보인 것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공단조성, 업무·상업용건축 등이 활발한데다 가을 성수기부터 심각한 파동이 우려되었던 벌크시멘트 수급사정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 전국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6년 9월 30일 기준)

구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생산능력(B/P)		믹서트럭(R/T)
			기 수	천m ³ /년	보유대수(대)
서울·경인	107	153	240	84,000	7,210
강 원	63	70	74	18,800	1,063
충 북	42	43	51	13,900	897
대전·충남	66	79	102	30,498	1,832
전 북	41	46	60	17,780	1,028
광주·전남	59	74	91	26,640	1,765
대구·부산	83	96	125	36,858	2,129
부산·경남	91	103	145	44,778	3,067
제주	13	13	16	4,320	269
합 계	532	677	904	277,674	19,260

-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4 분기중 레미콘출하실적을 살펴보면 [표.5 참조]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에 비해 월 평균 30%이상을 상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이를 수요별 레미콘생산량으로 비교하여 보면 민수부문이 전년동기 21,560,294m³ 대비 35.3% 증가한 29,170,711m³을 생산하

였으며 관수는 공공기관에서의 발주형태가 지속적으로 턴키 형태로 변환되어 3/4분기 이전까지 관수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에서 정부주도의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4,561,393m³보다 23.4%증가한 5,628,900m³를 출하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아파트 및 골프장건설과 정부주도의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전북지역이 전년동기 1,081,753m³대비 57.9%증가한 1,707,559m³를 출하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였으며 대전·충남지역이 SOC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대전시내 전화국 및 시청사등 공공건축물과 문화시설에 대한 공사를 중심으로 관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같은 기간의 400,101m³보다 무려 92.5%가 증가한 770,003m³를 기록하였고 민수는 2,699,230m³를 출하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1,922,267m³보다 40.4% 증가하는 호조를 나타내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49.4%증가하였다. 또한 부산·경남지역은 전년대비 44.4%증가한 6,107,038m³를 기록하였고 광주·전남지역이 주택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다 공공건설부문의 물량도 크게 증가하여 민수는 2,507,748m³, 관수는 513,367m³를 출하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50,962m³보다 34.2%증가한 3,021,115m³에 달했다. 이외에 강원지역은 33.7%증가(1,793,845m³) 하였고 충북지역은 23.1%(1,550,301m³), 대구·경북지역은 18.7%(4,340,677m³)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3/4분기 레미콘 출하실적은 434,592m³로 전년동기대비 8.9%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침체로 레미콘 수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관급공사의 대부분이 조기에 발주

됨으로써 이후 레미콘산업경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표 5〉 96년 3/4분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³, %)

지 역	수요별	1996	1995	증감율
서울·경인	민수	10,935,648	8,310,432	31.6
	관수	1,439,603	1,271,378	13.2
	계	12,375,251	9,581,810	29.2
강 원	민수	1,392,925	999,970	39.3
	관수	400,920	341,208	17.5
	계	1,793,845	1,341,178	33.7
충 북	민수	1,288,357	1,043,621	23.4
	관수	261,944	215,113	21.8
	계	1,550,301	1,258,734	23.2
대전·충남	민수	2,699,230	1,922,267	40.4
	관수	770,003	400,101	92.5
	계	3,469,233	2,322,368	49.4
전 북	민수	1,291,322	824,863	56.6
	관수	416,237	256,890	62.0
	계	1,707,559	1,081,753	57.9
광주·전남	민수	2,507,748	1,816,672	38.0
	관수	838,461	434,290	18.2
	계	4,340,677	2,250,962	34.2
대구·경북	민수	3,502,216	2,855,330	22.7
	관수	513,367	801,561	4.6
	계	3,021,115	3,656,891	18.7
부산·경남	민수	5,249,942	3,534,200	48.6
	관수	857,096	695,019	23.3
	계	6,107,038	4,229,219	44.4
제 주	민수	303,323	252,939	19.9
	관수	131,269	145,833	-10.0
	계	434,592	398,772	8.9
합 계	민수	29,170,711	21,560,294	35.3
	관수	5,628,900	4,561,393	23.4
	계	34,799,611	26,121,687	33.2

3. 1997년 경제전망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7년 경제전망에 의하면 1997년중 우리경제는 1995년 4/4분기 이래 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6.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며 민간소비는 경기하강으로 다소 둔화되겠으나 6%대의 신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비투자는 지난 경기확장국면에서 대규모 생산능력의 확충으로 기업들의 설비부족이 해소되었

고 재고누적 및 수출여건의 불투명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3.5%대의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등이 활기를 보이고 부산아시아게임과 월드컵 및 ASEM등 대규모국제대회 관련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의 6.0%정도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97년도 우리경제는 하반기 이후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회복이 점진적으로 가시화 되어 연간 6.5%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이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경우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4. 97년도 건설경기 전망

정부의 1997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은 양적 부족과 함께 물류비등 부담요인의 가중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동안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항만, 철도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려, 97년도 재정규모증가율이 96년도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7년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규모는 96년도보다 1.4%증가한 10조1,379억원으로 늘어나 공공부문건설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건설은 올해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으로 약 700여개 건설사가 신설될 예정이며 건설시장 개방으로 해외의 대형 건설사가 국내 건설시장에 본격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한정된 공사물량을 둘러싸고 수주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부도사태

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공급촉진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임대주택건설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는 96년보다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97년 건축허가면적 전망

건설협회가 발표한 97년도 건설경기 전망에 의하면 표.6과 같이 97년도 건축허가면적은 건축경기 회복이 불투명 할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7.8%증가한 1억 2,330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미분양주택 적체문제로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내년도 사업물량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개량 및 주택단지 조성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어,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원룸형주택 등 대규모 아파트형 주택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의 활기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96년보다 9.2%증가한 6,78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96년보다 6.1%증가하는 5,500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97년 건축허가 면적 전망

(단위 : 천㎡, %)

	95년		96년(추정)		97년(전망)	
	면적	증감률	면적	증감률	면적	증감률
총허가면적	117,327	1.0	114,400	-2.5	123,300	7.8
주거용	62,614	-1.2	62,100	-0.8	67,800	9.2
비주거용	54,713	3.6	52,300	-4.4	55,500	6.1

2) 97년 건설수주액 전망

건설협회에 의하면 97년 국내 건설 공사

총 수주액은 표.7에서 보는바 와 같이 96년대 비 16.7%증가한 79조9천500억원으로 추정 된다. 이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97년도 민간건설 수주액은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월드컵, ASEM회의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추가 건설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보이나 미분양주택 적체 해소등 주택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기하락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의 위축,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1.6% 증가하는 44조1천800억원에 그쳐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건설 계약액은 월드컵 대회, 아시안게임등 대규모 국제행사유치와 정부가 내년도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23.6% 증가하는 35조7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토목은 SOC시설의 투자 확대로 전체 공공건설계약액의 약 70%내외를 점유하고 증가율도 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 전체 공공부문 건설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5. 주요 건자재 수급동향 및 전망

1) 96년 시멘트 수급동향 및 97년 전망

양회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에는 고려 장성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한일, 한국고로의 생산시설 증대와 국내 수요증가에 따른 가동율 제고로 전년대비 3.7%증가한 57,190천톤을 생산하였으며 이중 내수는 지속적인 SOC부문에 대한 확충, 공공공사 조기발주, 총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5.3%증가한 59,500천톤을 출하하였다. 또한 수출은 내수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 물량확보가 어려워 800천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7.2%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수요증가에 따른 국내 수급 안정용으로 전년보다 62.3%증가한 3,380천톤을 수입한

〈표 7〉 97년 건설수주액 전망

(단위 : 억원, %)

	95년		96년(추정)		97년(전망)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합 계	599,285	14.9	685,300	14.4	799,500	16.7
공공	243,508	28.2	289,500	18.9	357,700	23.6
민간	355,777	7.3	395,800	11.2	441,800	11.6
토목	205,469	32.6	244,800	19.1	315,500	28.9
건축	393,816	7.4	440,500	11.9	484,000	9.9

〈표 8〉 시멘트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1996년						1997(전망)	
		상반기(실적)		하반기(추정)		합 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공급	생산	26,490	0.8	30,700	6.4	57,190	3.7	57,800	1.1
	수입	1,276	47.5	2,104	72.9	3,380	62.3	4,000	18.3
	계	27,766	2.3	32,804	9.1	60,570	5.9	61,800	2.0
수요	내수	27,308	1.2	32,192	9.1	59,500	5.3	61,800	2.5
	수출	471	-11.8	329	-23.8	800	17.2	900	12.5
	계	27,779	0.9	32,521	8.6	60,300	4.9	61,900	2.7
계 고		852	21.4	1,200	39.4	-	-	1,100	9.3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시멘트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시멘트 총 생산량은 고려장성공장의 정상화와 쌍용, 한일, 한국고로, 성신 등의 생산시설 증대로 96년보다 다소 증가한 57,800천톤에 이를 전망이다. 내수는 건축부문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확충, 지자체에 의한 지역 개발 및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대선에 따른 건설수요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토목부문이 전체 건설경기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96년보다 다소 증가한 61,0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수급 규모상 현재의 공급능력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18.3%증가한 약4,000천톤의 시멘트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 96년 골재 수급실적 및 97년 전망

96년도 골재수요는 전년대비 9.5%증가한 214,996천m³를 나타내었다. 수급사정은 대체적으로 원활한 편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미비로 수도권지역에 경우 하반기 초까지 골재채취 허가량이 50%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인 반면 전남북, 경북, 제주 등지에서는 10-30%이상의 허가량 초과를 보였다. 앞으로 광역시에 지하철 및 기간산업발

주공사와 미분양아파트적체의 영향으로 시행을 미루어 왔던 아파트건설이 연말을 앞두고 상당 부분 착공될 것으로 보여 골재 수요가 증가될 추정된다.

〈표 9〉 골재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천m³)

구 분		96년도	97년도	증 감(%)
공 급	허 가	179,746	177,736	▽ 11.1
	이월허가	28,462	28,745	0.9
	비 허가	35,482	20,507	▽ 42.2
	계	243,690	226,988	▽ 6.9
수 요	내 수	214,945	226,988	5.6
	계	214,945	226,988	5.6
과 부 족		28,745		

한편, 97년도에는 수요가 전년대비 5.6%증가한 226,988천m³로 전망되며 공급량은 전년도 이월 허가분 28,745천m³와 97년도 허가량 177,736천m³, 비허가량 20,507천m³를 합하여 총 226,988천m³로 추정되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수도권의 영종도 신공항 및 부산권의 신도시건설등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수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성수기 이전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허가의 조기 완료가 요구된다.